

# 전각도 석탑도 시간을 초월해 가르침 하나로 서 있네

**기림배치가 수려한 구례 화엄사(하)**

보제루를 바라보며 오른쪽으로 돌아 서는 순간 나팔수씨는 깜짝 놀랐다.

“와, 한 장의 사진을 보는 것 같다.”  
“그 표현 참 근사한데? 이 장면이야 말로 오래 기억될 한 장의 사진이고 말고.”

화엄사의 중심 영역에 들어선 부부는 적목당 앞에서 각황전과 탑 그리고 웅장한 돌계단과 여러 전각들을 한눈에 바라보며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할지 몰랐다. 우선 널찍한 마당에는 두 개의 탑이 서 있다. 각황전과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돌계단도 상당히 규모가 컸다. 전각들이 위치한 석단이 유별나게 높아 보였고, 전각들도 하늘로 날아갈 것처럼 우아하게 보였다.

“어는 것 하나 눈에 거슬리지 않으면서, 각자가 긴 시간의 역사를 품고 있다고 해야 하나?”

중얼거리듯 낮게 말하는 지혜장의 마음을 남편도 알 것 같았다. 부부는 입을 꼭 다문 채 탑 앞으로 가서 합장 반배를 했다. 동서로 나뉘어 서 있는 탑은 오층이었고 서쪽탑(서오층석탑 보물 제133호)은 기단부터 화려한 조각이 장식되어 있다. 반면 동쪽의 탑(동오층석탑 보물 제232호)은 별 장식 없이 소박하게 서 있다.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처럼.

“이 마당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

“뭘데?”  
“시간이라는 것.”

“시간? 아, 이 탑들이 삼국시대 때의 것이어서?”  
지혜장의 의도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이 높다란 석단위에 지어진 명부전 대웅전 영전 원통전 나한전 그리고 각황전과 석탑들이 창건 이후 긴 시간동안 생멸을 거듭하면서 각자의 위치를 지키



화엄사의 상징 사자사 삼층석탑과 석등

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 마당에 서 있는 탑은 삼국시대의 것이고 저 위 건물들로 올라가는 돌계단 역시 삼국시대의 유물이야. 신라 혹은 백제의 시간을 밟고 올라간 곳에 조선 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위용을 떨치고 있지? 각각의 건물들이 아주 독특한 양식으로 정성스럽게 지어졌어. 각황전의 경우 그 자리에 신라 때 의상대사가 세운 장륙전이 있었다고 하니, 신라의 시간 위에 조선의 건물이 세워진 것이지. 그 건물에서 지금까지 대를 이어 예배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듣고 보니 그러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탑과 건물만 볼 게 아니라 거기에 포개져 있는 역사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군.”

지혜장은 남편에게 불교가 설정하는 시간의 단위를 설명하려다 그만두기로 했다. 유순, 검, 나유타를 비롯해 항하사에 비유되는 개념들을 일일이 설명할 분위기는 아니었으므로.

부부는 천천히 대웅전으로 오르는 돌계단을 밟았다. 한 계단씩 오르며 신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을 거쳐 현재에 이르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연을 품고 이 계단을 올랐을까를 생각했다. 큼직큼직한 돌들로 만들어진 계단 중간에 세로로 경계석을 두어 모두 네 칸이 되게 했는데 그 칸칸의 너비가 중간은 좁고 바깥쪽은 넓은 것이 재미있었다. 재미삼아 세어보니 계단은 모두 18개였다.

대웅전(보물 제299호)은 벽화 장식 스님 인조8년(1630)부터 6년 동안 중건했다. 왼쪽에 각황전이

## 대웅전 각황전 등 전각 입진란 이후 중건 탑 석등 돌계단 등은 삼국시대 모습 간직

라는 웅장한 건물이 있어서 그렇지 대웅전 자체는 매우 웅장하고 맵시가 뛰어난 건물이다. 네 귀의 활주가 돋보이고, 한 칸에 문이 3짝 씩 달려 있는 전면은 모두 5칸이나 된다.

명부전과 영전, 원통전, 나한전을 거쳐 각황전 앞에 선 부부는 적목당 방향으로 서서 마당을 내려다 보았다.

“여기서 봐도 멋진 풍경이야. 앞산이 아주 가까이 느껴지지만, 저 아래 마당이 좁아 보이지도 않고 건물들도 하나같이 거기 있어야 해서 있는 것 같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지혜장이 네 마리의 사자가 떠받치고 있는 탑신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 사자탑(보물 제300호)은 탑이 아니래. 정확한 용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글쎄, 그리고 보니 좀 이상하게 생기셨군. 저쪽은 석등이 확실한 것 같은데.”

나팔수씨가 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간 각황전 앞 석등(국보 제12호)은 높이가 6.36m나 된다. 큼직한 팔각 지대석 위에 팔각의 기단을 놓고 그 위에 배가 불룩한 간석을 놓았다. 이 맵시 있는 간석 때문인지 그 위의 양련석과 한 칸 건너 화창이 뿜던 화사석, 육계석 등이 다소 육중해 보인다.

“나는 절에서 이런 멋진 석조물을 보면 옛날 사람



적목당 앞에서 바라본 각황전. 조선 숙종 때 지어졌으며 그 전에는 의상 스님의 장륙전이 있었다.

들이 참으로 대단했다고 생각해. 요즘처럼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었을 그 시절에 손으로 이런 걸작을 만들었으니 말이야.”

“기계가 발달해도 사람의 정성은 퇴보했는지 모르지. 이 석등을 만든 석공의 마음과 요즘 그러인 다를 확률 같아서 공사하는 석공의 마음이 같다고 할 수 있겠어? 종교나 예술이나 마음의 영역에서 생각해 그 내면의 진실이 보이는 법이거든. 여기 각황전은 조선 숙종 때에 지어졌지만, 그 전에는 의상 스님이 지은 장륙전이 있었다고 해.”

의상대사의 시절에는 장륙상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장륙상은 높이가 1장 6척, 즉 480cm의 불상이다. 의상 스님은 3층에 좌우 48칸의 장륙전을 지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정작 장륙전의 가치는 불상의 크기보다 그 벽을 장식했던 석경(石經)에 있다.

의상 스님은 지리산에서 나는 청석(곰돌)을 다듬어 만든 판에 <화엄경>을 새겨 석경을 만들었다. 그 석경으로 장륙전의 벽을 장식했던 것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나온 <동국여지승람>에 “네 벽 모두 흙을 바르지 않은 청석벽인데 여기에 화엄경을 새겼다”는 구절이 나온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불타기 전의 장륙전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왼쪽 출입문으로 들어 간 각황전(국보 제67호) 내부의 연속 그 자체였다. 밖에서는 2층이지만 안에서는 통층이다. 높은 단 위에 모셔진 삼존불과 사이사이의 4대 보살님을 향해 정성껏 절을 했다. 굵은 기둥 옆에서 절을 하던 나팔수씨는 영풍한 생각을 했다.

## 절집은 종교 예술 역사의 종합박물관 눈에 안 보이는 가르침 읽는 눈 갖춰야

“일생에 몇 번이나 이 곳에서 삼배를 할 수 있을까?”

삼국시대에서 오늘날까지의 시간이 한꺼번에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생각도 했다. 그 시간을 어깨에 올리고 살아간다 해도 언제 또 이곳에 와서 절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존재 그대로 무상이 아닐 수 없다. 이 감정을 아내에게 말하면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이번 생만 살고 말아야?”

각황전을 나온 부부는 다소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면서 지혜장은 각황전 불사에 얽힌 이야기를 했다. 계과 스님과 노파, 속종과 공주가 등장하는 유명한 일화다. 각황전이라는 이름도 속종의 불사 동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나팔수씨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효대(孝臺). 각황전 서남쪽 높다란 언덕의 이름이다. 화엄사의 대표적인 아이콘 사자사 삼층석탑(국보 제35호)이 있는 곳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엄사는 못 가봤어도 이 삼층석탑 사진을 보았을 것이다. 석탑의 양식도 독특하지만, 화엄사의 창건주인 연기조사가 지극한 효심으로 어머니를 공양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는 설이 전해져 유명해진 것이다.

“아, 이 탑의 실물을 보게 됐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탑은 꼭 보고 싶었거든.”

나팔수씨가 사자사 삼층석탑 주변을 돌며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신바람이 난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이 탑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어머니고 석등을 이고 앉아 있는 분이 연기조사라는 거지?”

“전해오는 얘기가 그렇다는 것이고 학술적으로 이 탑의 기능과 조성연대 등은 그 얘기와 좀 다르다고 하던데?”

“그런 그야말로 학술적인 얘기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연기조사의 효심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렇게 탑으로 남겼겠느냐, 뭐 그런 거 아니겠어?”

탑의 부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혜장은 남편의 말에 공감했다. 천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이 자리에서 있었던 탑. 지금 이 형상 그대로 들려주는 이야기로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삶의 진정성에 닿아 있는 소박한 깨우침 하나로 충분할 테니까.

“사자는 지혜의 상징이고 제왕을 뜻하지. 그런 사자 네 마리가 떠받치고 있는 탑은 얼마나 존귀한 것이겠어? 그 귀함 속에 서 계신 인물이 부처님이든 연기조사의 어머니이든 상관 없어. 어쩌면 이 탑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저 탑 속의 인물상에 오버랩 시키고, 다시 석등 속의 인물도 자신이라고 여긴다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 수 있겠지.”

글=임연태(시인·본지는설위원) mian1@hanmail.net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특허등록(30-0607637)

# 法性偈 十波羅密圖 制作·普及 案内

법성도는 의상대사께서 최상경의 화엄경 십지요체정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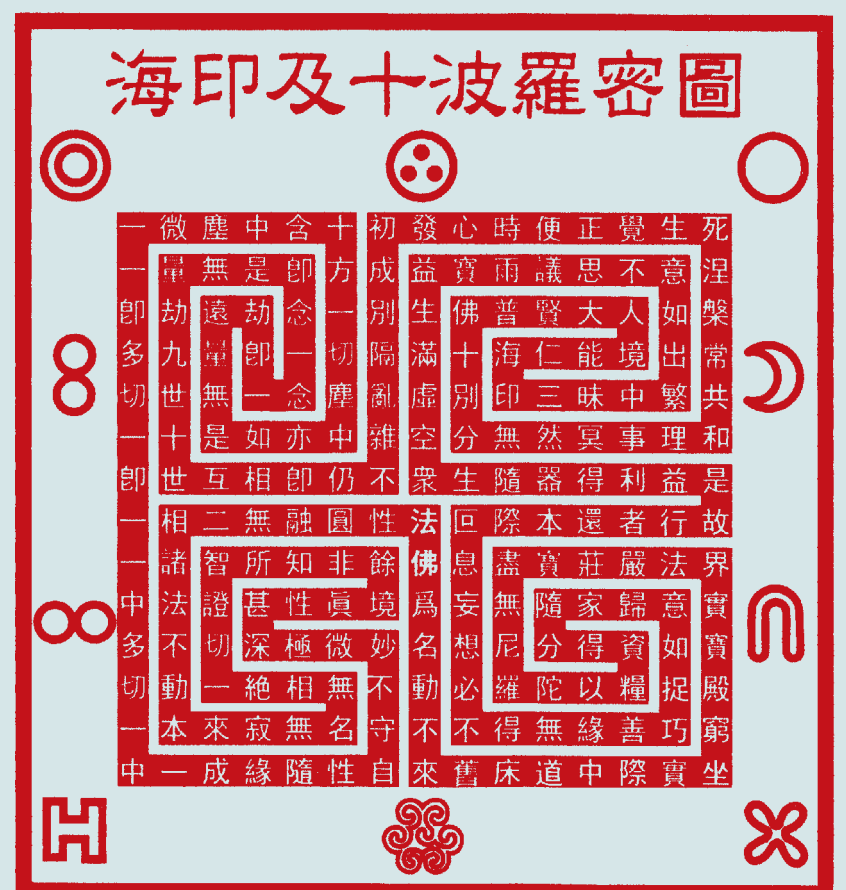
타·외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符籙 보다는 천만배 이상 영험과

수승한 공덕이 있는 법성게십바라밀도입니다.

※ 법성도는 楮紙(딱종이)에 槐黃紙를 수공업으로 염색하여 鏡面朱砂로만 특수 제작하여 불자님의 포교용으로 염가 제작하여 드립니다.

예수재용, 호신용, 사경용, 액자용, 복장 점안용 등 사양에 주문제작합니다.

법성원 전화 051)532-1113 팩스 051)557-4811



法性圖所持者 成就一切萬法 消滅一切諸障碍  
법성도 소지자는 일체만법이 성취하고 일체마장이 소멸한다.

